



식사동 구제거리

내 스타일을 구제해줘!



“옷 좀 잘 입어보고 싶은데, 어떤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이것저것 다 사볼 수도 없고…누가 나 좀 구제해줘!” 마음 편히 다양한 옷을 입어보고 가성비까지 누릴 방법을 찾던 중 딱하니 눈에 들어온 ‘식사동 구제거리’. 고양시 ‘식사동 구제거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깔끔하게 정비된 구제거리를 찾아가 봤다.

글. 사진. 차정호(고양시 소셜기자)

구제옷 맞아? 청결한 매장과 깔끔한 옷

식사동 구제거리 매장들의 첫인상은 ‘이거 구제옷 맞아?’였다. 흔히 구제옷이라고 하면 헌 옷 냄새가 나거나 해진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매장 DP(전시)는 종류별로 정리돼 있고 옷들은 새것처럼 깔끔했다. 거리의 끝에 위치한 ‘기석무역’은 거대한 아울렛처럼 보일 정도였는데, 2012년부터 기석무역에서 근무한 최경화·황선영 씨는 ‘예전보다 좋은 품질의 옷이 많이 들어온다’라며 구제거리 옷들의 품질변화를 강조했다. 구제거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과 동시에 질 좋은 옷들이 들어오니, 고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가성비만? NO~ 개성까지!

식사동 구제거리의 가장 큰 매력은 누가 뭐래도 ‘가성비’다. 하지만 정말 가성비뿐일까? 짧지 않은 구제거리를 거닐다 보면 다양한 콘셉트의 가게를 만날 수 있다. 거리 중간에 위치한 ‘돈키호테’는 마치 숨겨진 보물섬 같은 곳이다. 7~8년 전 이곳 구제거리의 매력에 빠졌던 김신에 사장이 애정을 가지고 꾸민 가게다. “맞는 옷을 고르고 소개하는 게 즐거웠어요. 제가 직접 고른 옷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곳에 직접 가게를 열게 됐죠. 이곳 구제거리는 단순히 구제옷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빈티지 의류를 수입해서 전시하는 가게도 있고, 리퍼브 상품(Refurbished Product: 반품이나 전시상품, 이월상품, 단종상품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 매장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브랜드 위주로 구성했어요. 무조건 상품을 싸게 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가게의 테마와 맞는, 개성 있고 괜찮은 품질의 상품을 들여오려고 하죠.” 가게 곳곳이 포토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예쁘게 꾸며져 있어 그 자체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고 옷 또한 개성이 넘쳐 홍대, 강남, 이태원 편집숍을 방불케 했다.

코로나19 걱정? NO~ 매장별 방역까지 철저

코로나19 걱정에 방문이 꺼려진다고? 식사동 구제거리 각 매장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안심콜, QR코드, 방역록 등 방문자 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손소독기도 곳곳에 비치하고 있다. 구제 옷 가격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구제’ 같지 않은 품질을 갖춘 곳, 개성 있는 옷을 보물찾기하듯 건져낼 수 있는 식사동 구제거리. 옷을 살 때, 스타일을 꾸밀 때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신에게 딱 맞는 ‘인생옷’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



넓은 매장에 가득한 구제옷들



식사동 구제거리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건달산로 245(일대)

교통안내: 마을버스 050, 081, 087, 097 / 고양누리버스 N002

